

선교학적 관점에서 본 “변방성(邊方性 marginality)”과 자신학화 이슈

김철수 선교사(케나 AIU 교수)

1. 들어가는 말: 선교를 돌아봄과 자신학화의 노력

이미 20세기 중반이 넘어가면서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선교 방법론 또는 타문화권 선교 방식에 대해서 반성적인 목소리들과 연구들이 나왔음을 우리는 선교 역사를 돌아보면서 쉽게 알 수 있다. 자신학화 포럼에서 제 1차 자신학화 포럼 및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출간한 자료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학화 노력은 어느 “힘 있는” 이들이 경험하고 해석하고 적용한 복음을 일방적으로 전수해 주는 종교적 혹은 정신적 제국주의가 되지 않기 위한 겸허한 자세의 반영이기도 하다. 이 땅에서 삶의 방식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이들을, 그 아들을 아낌 없이 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에서 보고 성자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타문화권 혹은 타종교권 사람들에게 접근해 보고자 하는 겸허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신학적 작업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공중부양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만큼, 이천년전에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 속에 히브리 인으로 오셨던 성자 하나님의 사람 만나기 현장이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어떤 이들에게는 철학적이면서 추상적인 것처럼 들리는 서구의 신학적 담론들 역시 당시 서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서구 복음주의자들의 씨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 당시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은—예를 들자면—오늘의 아시아 사람들과 혹은 아프리카 사람들과는 다른 상황과 도전들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신학 역시 “자신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너무도 당연하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사실로 들리지만, 희한하게도 선교 역사는 그들이 발견하여 정리한 신학이 마치 하나님의 진리의 보편적이거나, 더 나아가서는 거의 유일하게 정리된 것처럼 전파되고 수용되어 왔다. 그 결과 서구 교회의 선교 방식 역시 일방적으로 일방적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 즉, 다양하고 복잡한 수용자의 상황이나 이해에 대한 고려가

많이 부족한 가운데, 복음 그 자체보다도 그 복음에 대한 서구식 이해를 중심에 놓고 서구적인 이해와 적용을 강조하여 (강요도 하면서) 사역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는 소위 기독교 혼합주의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아프리카인들에게 맞는 복음주의의 정착은 아직도 큰 과제로 남아 있다. 물론 20세기 중후반부터는 선교사/선교회들과 “피선교지” 교회들과의 갈등이나 심도 있는 대화들을 통하여 반성학적인 새로운 신학 분과가 선교학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선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 중심성이 서구 교회의 선교 이해와 방식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의 지난 30여년간의 선교 사역과 연구를 돌아볼 때에도 한국 교회 역시 이러한 서구중심적 패러다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서구 선교사나 서구 신학을 통하여 전수받은 선교 개념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정확하며 또 예수의 방식으로 실천되고 있는지 한번 더 심도 있게 돌아보아야 할 시점에 왔다고 필자는 생각한다.¹ 그래서 몇가지 고민하며 스스로 질문하면서 본 소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방식을 돌아보고, 과연 이러한 성경적 원리가 우리의 선교 실천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자 한다.

이러는 가운데 필자가 본고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개념은 하나님의 선교 진행에서 발견되는, “변방성(marginality)”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적 방식이다. 젠킨스가 지적하였듯이 이제 선교의 무게 중심이 남반구로 이동하였다고는 하지만,² 아직도 선교와 관련된 담론과 사역들을 보면 아직도 서구 “중심”과 비서구 “변방”의 구분이 나누어지고 있어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과연 우리 주님의 선교 방식을 따르고 있는가? 비록 본고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질문들을 자기반성 차원에서 자문하면서, 필자는 하나님의 선교가 성경의 구속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좀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 방식을 더욱 겸허히 성경에서 탐구하고자 하였다.³ 그 결과 본고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변방성” 개념을 찾게 되었고, 이것을 렌즈로 우리의 지난 선교 이해와 사역들을 들여다 보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후자에 대한 논의보다는 성경의 구속사와 교회사 가운데서 발견되는 “변방성” 개념에 더

¹ 진정 선교학적 고민이란 단순히 탁상 논리의 고심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그것도 나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의) 다양한 만남을 통하여 나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형성된 숙제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숙제에 만족할 만한 답을 선교적 선례를 통하여 얻지 못했다면, 필자는 이러한 고민이 “자신학적” 선교학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싶다. 필자에게는 그러한 고민 중 하나가 이제 복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변방성” 개념과 이슈이다.

² Philip Jenkins의 *The Next Christendom*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참조.

³ 필자는 풀러선교대학원에서 강의한 MB524 “기독교 인류학과 변방인 (Christian Anthropology from the Margins)” 과목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탐구할 수 있었다. 본고의 성경적 데이터들은 이 과정에서 얻은 것들이다.

육 초점을 맞춘다.) 동양과 서양에서 신학과 선교학을 수학하고 아프리카에서 나름대로 오랜 시간 사역해 온, 비서구사회 출신인 필자의 이러한 작은 고심이 선교의 자신학화적 관점을 부양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소망한다.

2. “변방인”과 “변방성”의 선교인류학적 개념 정리

본고에서 필자가 염두에 둔 선교적 주제는 서구 선교사들의 선교를 받아본 문화권 사람들로써 우리가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하는 선교적 정체성과 선교 방식이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선교적 접근들을 역사 속에서와 오늘의 다양한 “선교지” 현장에서 보면서, 우리는 더더욱 성경 계시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조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구교회로부터 전수받은 모델들 가운데 귀한 것들은 계속 닦도록 노력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직접 조명해 보는 것 역시 선교적 방법론의 성숙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선교학적 돌아봄과 성숙을 위한 애씀은 자신학화의 필요한 한 여정이 되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를 점검해 보기 위하여 필자가 성경에서 얻게 된 선교적 개념이 “변방성 (marginality)”이다. 필자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선교,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셨던 그 동기와 양태와 방식을 살펴보면서 이 변방성 개념을 떨칠 수 없었다. 물론 성경에 “변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미 현대 사회학이나 인류학 등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 “변방 (margin)” 개념에 상응하는 단어들은 성경이 보여주는 구속사 속에 계속해서 등장한다. 필자가 의도하는 변방 개념은 영어로 하면 margin으로서 일반 다른 학문에서는 보통 “주변”이라 표현하기도 한다.⁴ (하지만 본고에서는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선교학적 의미를 강조하고 단어가 주는 선입견을 좀더 줄이고자 하여 “변방”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기로 한다.) 이 용어는 학문적 접근에 따라 그 의미가 다소 다르게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어진 사회의 주변 혹은 가장자리를 의미한다. 그 어떤 사회나 조직이든지 소위 주류(main stream)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으며, 따라서 그 사회의 가장자리도 있게 마

⁴ 변방인에 관한 많은 이슈들은 이미 사회학을 비롯하여 여러 인문학 분야에서 (선교학을 포함하여) 다루어져 왔다. 사회학적으로나 혹은 사회심리학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 신학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죄의 결과로서의 변방 개념을 논할 수도 있다. 또 경제나 인종이나 정치적 차원에서 변방성(marginality)을 개념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독자들은 amazon.com이나 대학/대학원 도서관의 database를 통하여 많은 연구 서적들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련이다. 문화인류학적으로 말해서 주류라 함은 본인들이 속한 사회에서 문화적인 주체가 되는 이들을 가리킨다. 그런데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그 사회의 문화적 주체가 되지 못하거나 문화의 주된 흐름에 함께 하지 못하는 이들이 항상 존재하는데 그들은 문화적 비주류로서 변방인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사회학에서는 주로 그 사회에서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는데, 이 경우 변방의 의미는 보통 소외의 개념을 동반하기도 한다.⁵ 이렇듯 누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변방의 영역과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조금은 다르게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⁶

본 소고에서 필자는 변방의 개념을 사회적 도덕과 정의와 윤리 등의 차원을 염두에 둔 사회학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문화인류학과 선교학적 측면에서 사용하고자 한다.⁷ 문화인류학적으로 말할 때에 변방인이란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하위문화(subculture)” 범주를 형성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하위문화(subculture)”란 어떤 문화적 구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동질 그룹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남가주를 구성하는 200개 가까운 여러 민족들은 “하위문화”들이다. 하지만 하위문화가 언제나 비주류 그룹이 되는 것은 아니다.⁸ 본고에서 필자가 특별히 논

⁵ 사회학과 인문학에서 여러 저자들은 사회적 변방인의 개념을 사회에서 여러 이유들로 소외되거나 힘없고 억눌린 약자들과 동일시 하기도 한다. 연구자들은 그들의 애환을 이해하고자 하며, 또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과 불의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변방인(margins) 혹은 변방성(marginality)에 대한 연구 글들은 사회학 분야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Adam Weisberger의 “Marginality and Its Direction” (Sociological Forum Vol. 7, No. 3 (Sep. 1992), pp. 425-446) 참조.

⁶ 기독교 신학적 입장에서 특별히 북미 아시아 이민자들의 상황을 예로 들어 변방성을 논한 글로서 Lee Jung Young의 Marginality: The Key to Multicultural Theology (Minneapolis, MN: Fortress Publishers, 1995. 마지널리티: 다문화시대의 신학. 신재식 역. 포이에마, 2015)를 들 수 있다. 본서는 사회학적 이론을 소화한 바탕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변방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보는 신선한 시각을 던져주고 있는데, 선교적 적용을 요청하고 있다.

⁷ 하지만 인류학적으로 변방인을 구분하는 작업 역시 매우 주관적이며 상대적일 수 있음을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변방의 개념과 변방인 범주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각 사회마다 주류 문화의 특징이 다르므로 어떤 사회에서 변방으로 취급되는 범주가 다른 사회에서도 반드시 동일하게 인식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유의할 것은, 동일 사회에서 변방에 대한 정의가 너무 분명할 경우에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오히려 그 잣대로 서로를 분화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차별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각 문화권의 변방의 개념을 문화적 내부자(emic)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신중하게 그 범주에 속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변방의 개념과 변방인 범주를 지나치게 일반화시켜서 불필요하게 변방인 개념을 아무에게나 적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⁸ 이에 대한 논의는 문화인류학 참고 도서들을 참조 바람. “변방인”으로 구분될 수 있는 이들 중에서,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약자에 속하는 이들은 다른 기존 하위문화들과는 달리, 변방인들로 있는 한 제대로 정착된 문화 구조나 안정된 심리를 갖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북미의 유색 인종 이민자들은 아직 사회의 주류 문화에 편승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통적인 가치와 새로운 가치들 사이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여러 면에서 유동적이고 위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따라서 불안의 심리가 상당히 강하며 때로는 반사회적인 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회에서 발견될 수 있는 하위문화로서의 변방인의 변방성이 갖는 선교적 의의이다.⁹

하지만 논의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사회 혹은 문화의 변방 (margin)과 중심 (center) 그 자체가 어떤 선교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적으로 중심에 있어도 선교적인 삶을 살다 보면 그 중심에서도 변방인이 될 수 있기에, 변방성(marginality)이라 함은 문화인류학적으로는 변방에 놓이게 된 결과로서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동시에 선교적 차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가치를 좇은 결과로 이 세상이 추구하는 중심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경의 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선교학적 측면에서 말하는 변방성(marginality)이란 하나님의 구속사적 선교의 도구가 된 이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필자는 이 후에서 말하는 선교학적 의미에서의 변방성의 예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이 변방성이 갖는 영적, 선교적 의미를 하나님의 구속사적 선교의 선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문화인류학적으로 볼 때에 변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가시고 또 이들을 당신의 구속 역사 속에 어떻게 사용하심으로써 당신의 선교를 진행해 가셨는지를 들여다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적 변방성(missional marginality)을 논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변방인”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갔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 변방인들이 갖게 된 선교적 자기 정체성과 변방성의 상관관계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나오는 성경의 영적인 원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흐르는 하나님의 선교 방식이라면, 우리는 이

⁹ 문화인류학적으로 좀더 보면 “사회적 변방인들 (people on the margins of society)”이란 그들이 속한 사회의 전통적 혹은 전형적인 문화의 기준(traditional or traditional cultural standards)이나 일반적인 사회의 기대치 (norms expected by society)에 미치지 못하거나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사회에서 변방의 개념은 인종과 언어를 중심으로, 혹은 이민이라는 범주를 중심으로 생각될 수 있고,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힘의 크기에 따라서 변방 개념과 변방인의 범주가 분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문화적인 주류에서 벗어나 사고나 행동양식이 특이한(idiosyncratic) 이들과 전통적인 문화적 가치를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외부로부터 유입하거나 창출하는 이들 역시 변방인이라는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변방인들의 예를 좀더 들여본다면, 인종이나 언어가 다르므로 인하여 자신들이 속한 주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변방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종이나 언어가 같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차별의식으로 인하여 그 사회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는 사람들도 있다. 조선 시대 사회의 서자들이 아마도 이러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남녀 차별이 문화적으로 심한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변방인이 될 수도 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다문화 가정이나 탈북인들 중에 주류 사회의 흐름에 동승하지 못할 경우 이들이 사회의 변방인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자들이 주가 되는 군대 문화에서는 계급과 상관 없이 여성들이 변방인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변방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많이 본다. 무숙자들 중 많은 이들은 한때 사회적 주류에 있던 이들이었지만 경제적 경쟁력을 상실하고 도태됨으로써 사회의 변방인이 된 경우이다. 이러한 변방인들은 사회의 주변에 여러 종류의 “소수자 (minority)”들을 형성한다. 흥미롭지만 불행하게도 이와 비슷한 변방과 중심이라는 양분화는 평등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국제 선교 기구들에서도 발견된다.

방식을 우리의 선교 원리로 삼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이 원리에 늘 비추어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다음 항에서 필자는 선교적 변방성을 논의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로 누구를 선택 하셨는지를 성경에서 살펴보고, 또 하나님을 만난 그들은 어떠한 세계관과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변방인을 선택하시는 하나님과 변방인의 선교적 정체성

성경에서 우리는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선교 도구로 선택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긴 역사를 노예로 살았던 이들이다.¹⁰ 오늘날 사회학이나 인류학에서 말하는 변방인의 삶을 세대를 거듭하며 산 것이다. 변방 중에서도 최악의 변방을 살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찾아가셨다. 그리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러 내셨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다는 사실은 구약 성경의 흐름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의 바탕이 된다. 하나님은 힘있는 이집트를 당신의 선교의 도구로 부르지 않으시고 그 사회의 변방에서 날마다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온 민족을 불러내셨다. 요즘 현대사회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성과와 효과 차원에서 본다면 매우 현명하지 못한 선택처럼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지식과 이성의 판단을 종종 뛰어넘는다. 하여간 아브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이집트로 들어간 시기, 그리고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던 그 긴 시간을 거치면서—이 모든 기간을 바울은 합하여 사백삼십년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갈 3:16-17)—이스라엘은 변방의 정체성이 민족의 DNA에 뿌리를 내릴 만큼, 그래서 출애굽 바로 후에는 오히려 종살이했던 그 이집트에 향수를 느낄 정도로 변방을 살았던 이들이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깊은 속을 살피는 것이 쉽지는 않은 신학적 작업이지만, 어쨌든 변방에 놓인 인간들과 그들의 고통에 귀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 사회학이나 인문학적으로 변방인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인류의 변방의 기원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신학 작업은 하나님께서 왜 변방인들에게 특별한 관심

¹⁰ 이스라엘이 몇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https://biblethingsinbibleways.wordpress.com/2020/04/26/were-the-israelites-in-egyptian-slavery-for-430-years/> 등 참조 바람.

을 보이시는지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다가가야 할 지를 아는 데에 커다란 통찰을 제공해 줄 것이다.

어쨌든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변방인 중 변방인들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는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선교적 도구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자기 정체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나그네 여정과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발견된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바로 이 출애굽에서 찾아 주신다. 즉,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민족이며,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대로 구해 내신 언약의 하나님으로 성경은 계속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특한 구속사적 존재 의미는 출애굽을 중심으로 항상 상기되었다. 심지어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하여 그 지역의 강력한 다윗 왕국을 이룩한 이후에도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애굽에서 구속되어 나온 노예들이었음을 기억하며 이 땅을 계속해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변방성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아야 할 선교적 자기 정체성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선교적 정체성은, 예를 들어 신명기 24:17-22의 본문에서도 잘 나타난다 (레위기 19:9-10 역시 참조). 본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나그네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있음을 알려 주신다. 나그네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은 분명 사회적 변방에 위치한 이들이다.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사회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보호하며 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했다. 그래야 하는 여러 이유들 가운데서 본문에서 즉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변방에 있었던 나그네였었다는 사실이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상기시켜 주고 있다. 2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선교적 정체성은 신약에서도 계속된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이들 역시 변방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유대 사회의 기득권자들이나 엘리트들을 제자로 선택하여 선교를 수행하지도 않으셨다. 오히려 그 사회의 힘의 중심에 있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신적 구속 사역에 초청하셨다. 즉, 변방에 놓여 있던 이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다. 그런데 신약에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선택하신 선교 방식은 사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서 그 극치를 볼 수 있다. 누가 보아도 확연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이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볼 때에 변방인의 모습을 스스로 선택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선교의 주체가 시며 복음의 내용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변방인이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림이 아니다. 어떤 종교를 보더라도 (이슬람의 경우에는 더더욱이) 이런 변방의 하나님은 상상하기 어렵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교의 모델로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교회 시대의 선교에 적용한다면, 변방성은 선교 수행 방식의 속성(modality)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성령이 오신 뒤 제자들은 스승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용기 있게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세상의 가치와 흐름에 역행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그들과 그들을 따랐던 성도들을 더욱더 변방으로 몰아갔다. 하지만 신약의 서신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격려의 말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였고, 복음 안에서 오히려 이미 이전에 나그네로 살았던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에게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았다. (갈라디아서 3:29, 히브리서 11:13 등의 구절들이 그 예가 된다. 베드로전서2:9은 출애굽기 19:5-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기시켜 준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 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받았고 제국의 변방인들로 살았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의 선교 차원에서 찾았고, 이러한 신앙은 그들을 버티게 해 주는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이 이 “변방인”들에게 합류하도록 만드는 영적 매력이 되었다. (베드로전서 3:15 참조.)

하지만 교회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이후 변방의 이야기는 한동안 교회의 과거지사로 사라지기도 하였다. 신앙 공동체가 변방에서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교회는 점점 그 본질을 잃는 듯하였다. 중심이라 함은 사회적 힘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힘을 가진 기득권자가 되면서 신앙 공동체 역시 정치적 구조와 비인격적 제도로 그 틀이 바뀌기 시작하였고, 그 중심 가치에서 “사람”이 빠지고 “힘”이 그것을 대신하는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앙 공동체의 본질을 추구하고 외치는 이들은 자연히 교회의 중심 세력에 의하여 소외되거나 정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들은 다시 변방에 놓이게 되었는데, 16세기를 전후로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이 변방인 범주에 속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변방인들은 성경 연구를 통하여 복음을 재발견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려는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복음을 깨닫고 영적으로 새롭게 된 이들은 이 복음을 살고자 하는 선교적 자세를 회복할 수 있었다. 이렇듯 교회사를 들여다 보면 복음을 재발견한 이들이 언제나 교회 개혁의 불씨가 되었는데, 그들은 늘 소수의 변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사용되어 왔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초대교회의 역사와 또 지난 2000년 교회사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적 특성이 위에서 필자가 정의한 변방 혹은 변방인들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고의 한계로 성경과 역사 속에 나오는 선교적 변방인이 된 복음의 사람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의 선교와 변방성에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어떤 영적인 비밀 혹은 원리가 분명히 함의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신학적 탐구는 변방에 놓여본 이들에 의하여 좀더 진지하고도 생생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필자는 생각한다.

4. 선교의 핵심 가치로서의 변방성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변방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교 동반자로 부르시고 또 변방인들을 향한 긍휼함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시는가? 그래서 선교를 수행할 때에 왜 변방성을 중요한 이슈 혹은 가치로 고려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으로 필자는 두 가지 이슈만을 간단히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로, 변방성은 하나님의 구속의 원인인 “죄”와 상관이 있다. (본고에서는 성경적 개념인 “죄”에 대한 논의는 지면의 한계상 생략한다.¹¹) 사회학에서 주변으로 묘사하는 인간세상의 다양한 변방은 성경이 가르치는 “죄”의 결과이다.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지만,¹² 인류가 범한 죄의 결과 중 사회적 차원 하나를 간단히 언급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배제한 타락한 인간 중심의 가치들로만 구성된 시스템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성경은 이것을 “바빌론”이라는 은유로 묘사한다. (이 바빌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성경은 말한다. 사13:4-22; 렘 25:12; 50:2-3; 단 2:31-38 참조.) 바빌론의 특징은

¹¹ “죄”에 대한 성경적 개념의 발전에 대해서 Gray Anderson의 Sin: A History (Yale University Press, 2009) 참조.

¹² 죄의 기원과 그 결과에 대한 선교신학적 논의는 김철수의 선교학총론 (GMS, 2020) 1부 3장 참조.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가치와는 반대 방향으로 삶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바빌론의 힘은 그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거나 도태된 이들을 변방으로 몰아낸다. 그 결과 다양한 변방들이 각 사회에 형성된다. 결국 죄의 결과인 불의와 불평등으로 형성된 다양한 변방에서 우리는 죄의 결과가 가져다 준 인간들의 신음 소리도 듣게 된다. 그런데 필자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중심 골격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구속(redemption)사역인 만큼,¹³ 변방인들의 신음 소리는 죄와 직결된 고통의 소리이며 하나님의 선교의 이유가 된다 (출2:23-24 참조). 그리고 변방에서 신음하는 인생들을 찾아주신 하나님을 만난 이들은 하나님의 시각과 공활한 가슴으로 변방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된다.

둘째로, 필자는 변방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신 자기 계시의 특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극치인 성육신 사건은 왜 변방에서 일어났을까? 메시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왜 변방인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 오셨을까? 이에 대한 신학적 해석과 통찰들을 본고에서는 지면의 한계상 심도있게 논의하지 못하지만,¹⁴ 다만 성육신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임을 필자는 새삼 강조하고자 한다 (요 3:16).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계시된 이 성육신의 역사적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을 포함하여)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변방성을 극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가 변방성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선교에 동참할 때에 잊어서는 안 될 핵심 가치가 된다.

그러면 성육신에서 보여진 변방성을 좀더 살펴보자. 성육신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고유하고도 독특한 성격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종교적 신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참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되는 신적 겸손이다.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신적 사랑의 계시의 절정이며 최고의 실천이다. 우리는 예수의 성육신과 지상에서의 삶과 사역,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이 얼마만큼의 겸손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게 된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고통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변방에 오신 그분의 겸손하심과 다르지 않으며, 그 겸손의 극치를 십자가에서 보는 것이다. 십자가야말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변방 중에서도 변방 아닐까? 그 변방에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계시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의 핵심이라면, 그를 좇는

¹³ 하나님의 구속사적 선교의 흐름에 대해서는 위의 필자의 줄저 1부 3-5장 참조.

¹⁴ 예수님의 변방성(marginality)에 대한 깊은 신학적 고찰은 Lee Jung Young의 Marginality: The Key to Multicultural Theology (Minneapolis, MN: Fortress Publishers, 1995. 마지널리티: 다문화시대의 신학. 신재식 역. 포이에마, 2015) 4장 참조.

이들의 선교 방식 역시 다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예수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 16:24) 하셨던 것이다.

복음은 신성이 인성으로 나타난 기쁜 소식으로서 인간이 회복해야 할 참된 인성을 보여준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성육신 사건은 인간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만큼 낮고 외진 변방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예수의 탄생이 단순한 소외의 사건이 아니며 소외를 정당화해 주는 사건도 아님을 보아야 한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본성인 신적 겸손하심의 극치가 인성으로 나타난 것이다. 예수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신적 변방성은, 변방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을 철저히 폭로해 준다. 그러나 하나님의 겸손하심은 우리의 교만과 죄를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겸손함을 통하여 흘러나온 신적 사랑은 그 어떤 교만도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어떤 힘도 인간의 교만을 깨고 죄를 회개시키지 못한다. 율법의 행위로도 인간의 죄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자신이 참 인간이 되심으로 희생이 수반된 겸손하심을 보여 주심으로써,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만한 영혼들은 그분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성을 회복해 갔다. 따라서 예수의 변방성은 사회학적 차원에서 말하는 소외 계층을 대변해 주는 약자를 위한 신학적 개념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 준 구속의 계시 사건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인성의 진정한 회복을 목표로한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계시의 빛에 자신의 교만하고 거만한 모습을 발견했다면, 그는 예수의 길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의 변방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야 할 길이 진정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이다.

5. 변방인들을 향한 선교

이제 자신의 변방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진정 “사람”에게 다가간다. 우리는 마태복음 15장 21-28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많이 가는지 명백히 보게 된다. 본문에서 엿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은 변방인들 중의 변방인이었다. 더욱이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그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상태였다 (22절). 그 여인의 이름도 성경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저 이름 없는 “가나안 여자 하나”로 소개되고 있다. 이 여인은 본인이 살고 있던 사회에서 수치

스런 (stigmatized) 삶의 정황 속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26절에 나오듯이 중동인들이 경멸하는 짐승 “개”에 비유될 만큼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변방의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의 관심 대상으로 본문은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녀의 간청을 들어준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자 하나님의 지상 선교의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변방의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본다.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소원만을 들어 주셨던 것이 아니다. 성경 본문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서 전반의 흐름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 가나안 여인은 그 딸을 고치게 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음이 분명하다. 즉, 그가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있었고 이미 메시아로 알려진 예수님의 태도와 치유를 통해서 사회적 수치로부터도 자유함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런데 마태는 본문에서 중요한 선교적 차원 하나를 더 암시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것은 예수님의 태도와 사역을 통하여 갖게 될 제자들의 변방인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23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 여자를 보내라고 하였다. 무의식중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자민족중심주의였다. 본인들만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다고 착각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세계관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세와 메시지는 전혀 달랐다. 마태가 의도한대로 제자들을 포함하여 마태복음서를 읽는 유대인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충격요법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도 볼 수 있다. 다말(창38)과 라합(수 2)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방의 변방인들이었다. 그러한 그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등장했다는 사실은 자민족중심주의적으로 살아온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그 이름 없는 가나안 여인에 대한 태도와 접근을 통해서 우리는 주변에 있을, 수많은 이름 없는 다말과 라합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나 인식이 어떠해야 할 지를 배우게 된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 예를 들어 인도의 카스트 4 계급에도 끼지 못하는 Dalit 들, 사회에서 멸시 받는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 사회에서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질병들을 갖고 있는 이들과 그 가족들, 문화적으로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 이들, 그리고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되는 수많은 종류의 변방인들 (무숙자들, 정신질환자들, 장애인들, 빈민들, etc.) . . . 교회들은 이들을 생각 속의 변방에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고지론”을 고수하며 이에 매료된 나머지 영적 혹은 사회적 엘리트에만 더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적 접근에 나타난 변방성은 선한 사마리아 인의 비유에서도 잘 보인다 (눅 10:25-37). 예수께서 선한 이웃으로 당시 유대 사회의 리더십과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아닌 사마리아인을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던 유대인들과 아주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신 것이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민족의 하나님 되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셨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은 유대인들의 그것과 매우 달랐다. 만일 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난 사고와 그 사고에 기초한 행위들이라고 정의한다면, 본 비유 역시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 그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유대인들에게는 변방 중의 변방에 있던 사마리아인을 그들 앞에서 선한 이웃의 모델로 들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계신지를 계시하신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으며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불행히도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음을, 본 비유는 극명히 보여준다. 바리새인이나 레위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종교”였다. 왜냐하면 바빌론의 특징 중 하나인 종교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그들은 항상 사회의 중심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그들은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세워진 종교를 통하여 사회의 기득권을 누리며 중심에 살던 이들이었다. 그들의 기득권, 즉 “중심성(centrality)”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그 사회에서 여러 모양의 약자들을 계속해서 소외시킬 수밖에 없었다. 결국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기득권에 위해가 된다고 여긴 예수를 그들은 정치적 모함으로 처형받게 하였다. 유대 사회의 중심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의 전통이 세운 유대인들의 종교 시스템을 섬기는 신종 우상숭배자로 퇴락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교와는 거리가 먼 위치를 선호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선교에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되고 말았다. 본 비유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어떤 각도에서 보고 해석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다종적인 메시지 속에 내포되어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시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시각과 행동이다.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선교의 중심적 가치이며 신적 관심의 최고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제 교회는 변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다가가야 할 것인지 물어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누가 변방인들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내면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그들의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고, 그들의 내면의 자리에서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복음 사역자들은 변방인들을 연구(research)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이해한 바탕 위에서 어떠한 사역적 접근을 해야할지를 고심하고 사역의 내용들을 구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변방인들에게 사랑과 긍휼로 다가갈 때에는 우리가 사회적 중심에 있었다 할지라도 변방인

들과 함께 변방에 위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좇아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삶을 추구할 수 있을까? (cf. 마태복음 16:24-25) 이러한 진지한 자기 성찰의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에 닿아 있어야 한다. 하나님에게 변방인은 결코 잊혀진 자들이 아니다. 변방인이 되어 변방성을 안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의 깊은 곳을 헤아릴 수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과 사역의 방향성이 변방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늘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끝으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고에서 필자가 선교학적으로 거론하는 변방인과 변방성의 개념은 사회학이나 혹은 통념으로 사용되는 그것과는 뉴앙스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물론 모든 사회는 소위 변방이라는 영역들이 나름대로 존재하고, 또 그곳으로 “밀려난” 이들을 변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변방과 변방인들이 갖는 선교적 의미이다. 즉, 변방과 변방인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신학적으로 고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선교학적으로 말하는 변방성은 꼭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만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다. 이 개념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과연 성경의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의 방향성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필자가 의미하는 변방성은 사회적 약자들을 사회적 강자보다 더 의롭다고 말하지 않는다.¹⁵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에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고 (롬 5:12),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빌리자면 모든 사람은 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는 약한 이들이다. 그 결과 온갖 종류의 변방과 변방인들이 역사 속에 늘 존재해 오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무의식적으로라도 세상에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위 “을”이나 “병”의 위치에 놓이기를 꺼려한다. 인간적 연약함은 이러한 꺼림이 우리의 거룩한 사역의 내면에도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끼치도록 허락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적 방향성으로서의 변방성 개념을 한번 더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필자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정직한 선교적 영성 차원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6. 나가는 말: 선교적 변방성과 자신학화 과제

¹⁵ 필자는 선교학적으로 변방인과 변방성을 언급할 때마다 종종 이러한 질문을 받기에, 이러한 부연 설명이 독자들이 필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 부분을 한번 더 강조하는 바이다.

이제 본고의 머리 부분에서 언급한 자신학화와 변방성과의 관계를 간단히 더 언급하고 줄고를 마치 고자 한다. 복음은 언제나 동일하며 불변하는 진리이지만, 이 복음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삶에 적용하는 시대와 문화적 상황은 늘 변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각 시대마다, 그리고 다양한 여러 문화적 정황 속에서, 복음을 더욱 이해하고 또 복음의 가치를 살아 내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심히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종합적인 씨름의 결과로 신학들은 정리되고 발전된다. 그런데 이 신학들은 하늘과 땅을 인간의 인지 차원에서 (epistemologically) 연결시켜주고자 하는 노력이기예 (예수님이 성육하셔서 그리 하셨듯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자신학들”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선교사들을 통하여 전수된 서구 교회의 모델과 그 선교의 패러다임을 좇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자 순전하게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고 우리도 나름대로 경험들을 축적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동안 수행해 왔던 노력들이 얼마나 주님의 선교 패러다임과 방식을 따른 것인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 돌아보는 것 자체 역시 자신학적 선교학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위에서 논의한 변방인 개념과 선교적 변방성의 담론은, 그동안의 우리의 선교를 돌아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겸허히 우리를 내려 놓고 주님이 원래 의도하신 방향성을 원점에서 찾아보는 반성적 노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변방성의 선교학”이라 명명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자선교신학적 모델을 생각해 본다. 물론 해 아래 새것이 없으므로 전혀 새삼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선교 이해와 실천을 돌아보는 데에 도움이 되는 척도로 유용하리라 여겨져서, 이에 몇가지 자신학적 선교학의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고심과 연구는 자신학적 선교학의 계속되는 과제가 되리라 사료된다.)

우선 생각해 볼 것은, 본고에서 성경을 통해 살펴본 하나님의 선교의 변방성이 교차문화적 상황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타문화권에서 온 이들이 지향해야 하는 삶과 사역의 방식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질문은 현대 선교 역사에서 문화외부자들의 선교 실천들이 (즉,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들”) 문화내부자들에게는 어떻게 비쳐지고 인식되었는가 하는 질문과도 연계된다. 또 다른 질문 하나는 앞의 질문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서 우리에게 전수된 서구 교회의 선교 이해와 방법론이 필자가 본고에서 강조한 선교적 변방성이라는 방향성을 얼마나 염두에 두고 있었을까 하는 분석적 질문이다. 이 질문은 “선교”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도 상통한다. 그리고 이 질문은 그동안의 선교 방식

에 대한 제3의 관점을 요청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오늘날 타문화권 선교를 수행하는 국내외 단체나 기구들을 살펴보면, 아직은 서구적 선교 개념과 실천 방식을 많이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선교를 받아본 이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왔던 선교사들의 선교 방식들을 모델로 삼고 모방하면서 경험한 시행착오들을 성경의 빛에 비추어 점검하고 반성하며 정리해 본다면,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선교에 대한 이해와 실천들의 현주소를 좀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숙한 선교의 실천을 위해서 어디를 어떻게 수정해야 할 지에 대해서도 좀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본고에서 필자가 논의한 변방성 개념이 성경적 선교의 패러다임에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 주는 주요 원리의 한 모퉁이가 되기를 겸손히 바란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선교 실천의 시간들과 경험들을 반성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되돌아 보면서 이로 인하여 얻어진 많은 통찰들을 선교학적으로 새롭게 정리할 때에, 우리의 선교 담론들은 인종과 문화와 역사가 다른 세계의 다양한 교회들에게도 유익한 자신학적 선교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학적 선교적 고민이 세계 선교에 꼭 필요한 기여가 되기를 바란다.